

국내 이슬람포비아 사회갈등 양상과 경찰 역할방안 연구*

이동혁** · 정지수*** · 이승호****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에서는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포비아 문제를 다루었다. 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슬람포비아는 주류사회와 이슬람 이민자 사회 상호 간에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저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무슬림을 향한 일방적 혐오와 적대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들의 저항과 반발을 촉발해 더 큰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포비아를 사회문제의 한 단면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국내 체류중인 다양한 배경의 무슬림들을 심층 인터뷰해 이들의 경험과 인식 속에 비춰진 한국 사회 이슬람포비아의 현상을 해석적 과정을 거쳐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와 함께, 다문화 시대에 있어 이슬람포비아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 당국의 접근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2.3.31.1.193>.

❖ 주제어 : 이슬람포비아, 한국 무슬림, 사회갈등, 갈등해결, 다문화 사회, 지역사회 경찰활동

* 이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발전시킨 것이며, 2022년 2월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서울경찰청 경위(leevent@hanmail.net)

*** 공동저자, 경찰대 행정학과,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부교수(jisu@police.ac.kr)

**** 교신저자, 경찰대 명예교수(shlee2350@hanmail.net)

I. 서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 수용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유형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더불어 내포하고 있다.

중동 정세 혼란 지속에 따른 대량 난민 발생,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활동이 가져온 국제 안보 위협은 ‘이슬람포비아’라는 이름의 이민자 혐오 정서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다문화 시대 공존의 가치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이슬람의 종교적 영향력이 미미하고, 주목할 만한 이슬람과의 충돌 경험 사례도 없었다. 그러나 2018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주 예멘 난민 찬반 논쟁에서 보았듯이 지난 몇 년간 한국도 그간 서구 유럽에서만 목격되던 이슬람 혐오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무장세력 탈레반 재집권의 영향으로 그간 우리 정부 당국에 협력한 현지 조력자들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할 당시에도 이들의 국내 수용과 정착 지원을 둔 논쟁이 한국 사회를 다시금 뜨겁게 달구기도 하였다.¹⁾

무슬림을 향한 일방적 혐오와 적대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언젠가 그들의 저항과 반발을 촉발해 더 큰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모독하는 적대적 행위는 한국 사회 내 이슬람 이민자라는 특정 집단의 사회적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무슬림들의 사회적 고립과 반감이 축적된 사회일수록 이들의 분노와 저항심을 자극하는 각종 선동적 주장과 극단주의 이념이 침투되기 쉽다. 이는 특히 서방권에서의 주요 테러 사건들이 사회적 차별로 소외된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자생테러로 변화되고 있는 최근 경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슬람포비아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넘어 다문화 시대에 있어 그간 우리 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유발하는 사회갈등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2020년 11월 1일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남성이 서울 소재

1) 한국일보 2021년 8월 24일자 기사, “아프간 난민 받아들이야 하나 놓고 고개드는 이슬람포비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314090001700?did=DA>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과 함께 이슬람에 적대적인 프랑스 당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전단을 붙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들이 부착한 전단에는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 자국이나 빨간색 X 표시가 그려진 사진과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다.²⁾ 이 사건은 오늘날의 이슬람포비아는 전 세계 어디서든 정치·외교·안보·문화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들이 결합해서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세계 각지 무슬림들의 반발로 이어지며, 한국 무슬림 사회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반발 정서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갈등 가운데 이슬람포비아는 위 사례에서와 같이 한국 내 무슬림들의 폭력화된 대응과 적극적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찰이 이슬람포비아 갈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포비아가 국내 무슬림들의 사회적 반발과 내·외국인 사회 간의 대립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포비아 현상을 이슬람에 대한 혐오진영의 갈등 유발 양상을 중심으로 조명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이슬람포비아를 바라보는 무슬림들의 시선’에 초점을 둔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인식과 태도 속에 비친 현재 한국 사회 이슬람포비아의 양상과 실태를 탐색해 그러한 양상이 향후 한국 사회와 무슬림 이민자 사회 간 실제 대립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진단하고, 이슬람포비아라는 한국 사회 새로운 갈등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 당국의 접근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선일보 2020년 11월 4일자 기사, “프랑스 대사관 앞에 나붙은 “무슬림 공격하면 죽는다” 협박전단”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04/HIKZYGDPMFERJM6JGZSLR2N4MY/?utm_source=nate&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II. 이론적 논의

1. 이슬람포비아의 개념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는 종교를 뜻하는 ‘이슬람(Islam)’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한국어로는 ‘이슬람 공포증’, 혹은 ‘이슬람 혐오증’으로 번역된다. 최근 들어서는 이슬람과 이를 믿는 무슬림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혹은 편견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슬람포비아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학문적 용어로 사용된 연구는 1997년 영국의 연구단체인 러니미드 트러스트(Runnymede Trust)가 발간한 보고서, “이슬람포비아: 우리 모두에 대한 도전(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는 이슬람포비아를 “이슬람에 대한 근거 없는 적대감 및 이로 인해 모든 혹은 대부분 무슬림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Runnymede Trust, 1997). 이에 따르면 이슬람에 대한 편견은 주로 미디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생겨나고, 이를 통해 무슬림들은 사회적 각종 서비스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심화되면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고, 이러한 과정 모두가 이슬람포비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미국진보협회에서는 이슬람포비아를 “미국 내 사회, 정치, 시민 생활영역으로부터 무슬림들의 배제, 소외, 편견, 차별을 일으키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해 영속화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과장된 공포, 증오, 적대감”으로 정의하고 있다(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11).

Chris Allen(2016)은 이슬람포비아에 대해 “만약 누구라도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 차별 혹은 폭력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이슬람포비아이다”라고 정의 내림으로써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차별, 배제, 편견, 폭력을 조장하는 모든 사회현상을 이슬람포비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Khaled A. Beydoun(2016)은 이슬람포비아의 개념을 개인적 이슬람포비아, 구조적 이슬람포비아, 변증적 이슬람포비아 등 3가지 분야로 확장, 세분화시켜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이슬람포비아(private Islamophobia)는 개개인의 사적 동기에 기반을 둔 무슬림

에 대한 두려움, 의심, 폭력을 의미하고, 구조적 이슬람포비아(structural Islamophobia)는 정부나 공공기관과 같이 정책을 담당하는 제도적 영역 내에서 형성되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나 의심을 의미한다. 변증적 이슬람포비아(dialectical Islamophobia)는 국가와 그 안의 조직체 사이에서 정치와 결부되어 유동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형성된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슬람포비아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나 학문적 차원에서 통일된 개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슬람포비아라는 용어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지칭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개념에 흡수되어 이해되는가 하면, 반이슬람주의(anti-Islamism), 반무슬림주의(anti-Muslimism) 등의 용어로 혼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연구단체인 러니미드 트러스트(Runnymede Trust)를 통해 ‘이슬람포비아’가 학술적 용어로 정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에서도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차별, 폭력 행위 등의 확산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이슬람포비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김승민, 2013) 등을 근거로 ‘이슬람포비아’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

2. 이슬람포비아와 관련한 주요 연구분석

이슬람포비아와 관련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슬람포비아의 문제 해결 대책을 논의한 연구 사례보다는 이슬람포비아의 원인과 양상 진단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슬람포비아가 발생하는 원인과 양상에 대해 Fabio Perocco(2018)는 유럽 사회 노동 현장과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사회적 결속을 다져온 무슬림이민자들이 주류사회와 갈등을 시작하며 이슬람포비아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Abdelkader, Engy(2017)는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포비아의 양상과 유형을 크게 ① 무슬림 증오범죄(hate crime), ② 이슬람 시설(mosque) 공격 ③ 고용 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 ④ 학내 차별(discrimination in school) 등의 유형으로 요약하며 이슬람과 무슬림을 안보적 위협 요소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고 이슬람포비아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무슬림들의 차별과 배제, 불만 및 갈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NES, FARID(2017)는 터키 싱크탱크 정치경제연구소(SETA)에서 발간한 2017년 유럽 이슬람포비아 리포트를 통해 유럽 사회에서 이슬람포비아가 확산하는 원인을 극우 정치세력의 활동성 강화와 반이슬람 성향 정치세력 간 연대 강화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슬람포비아 극복 방안으로 정부, 민간기구 등을 총망라한 초국경적 차원에서의 이슬람포비아 확산방지 대책과 인종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극우단체와 무슬림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극단화 방지 프로그램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김승민(2013)은 프랑스의 이슬람포비아 현상을 통해 유럽 내 이슬람포비아의 원인과 양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유럽 사회 무슬림 인구의 급증,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실패, 프랑스 정치권의 반이슬람화와 반이민 정책, 그리고 신문, 방송 등 미디어의 이슬람포비아 조장 등을 이슬람포비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승현(2016)은 이슬람포비아는 비단 종교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요소와 연관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이슬람포비아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은 이슬람과 무슬림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려는 ‘획일성’에 있고, 최근 들어 그 획일성은 대중매체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는 내용으로 이슬람포비아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서방 주요국 내 무슬림 난민의 대거 유입이 사회 문제화되고,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협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국내 연구에서는 이슬람포비아의 원인을 안보적 관점과 결부 짓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성수(2015)는 아랍 민주화 이후 더 심각해진 IS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테러 확산 경향 이면에서 이슬람포비아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진단했고, 박종수(2017) 역시 한국도 이슬람을 잠재적 테러 집단화 하면서 국가안보 위협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슬람포비아 원인을 국제사회 이슬람 테러의 확산이 가져온 안보 환경 변화에서 찾고 있다.

그 가운데 국내 반이슬람주의 현상을 사회 갈등적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김상섭(2017)은 국내 한 지자체의 ‘이슬람사원 건축허가취소처분 사례’의 전개 과정에서 애초의 지방정부-이슬람의 양자적 갈등구조가 반이슬람 성향의 기독교가 개입하

면서 지역사회 갈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그리며 이를 위해 정책적 차원의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오늘날 이슬람포비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공포의 확산 속에 무슬림에 대한 견제론을 주장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 등에 의해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슬림 인구 증가 속에 지속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공포는 대중들에게 이슬람은 국가안보 위협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이는 결국 무슬림이나 이슬람 시설을 향한 공격, 협박, 증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의 이슬람포비아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종교인이나 언론 보도 역시 이슬람포비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이슬람포비아 사회갈등에 대한 경찰 역할 모색의 필요성

갈등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개인, 집단, 조직 간의 대립 또는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심리 또는 행동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갈등은 갈등 당사자와 갈등 쟁점이라는 본질적 요소가 필요하다(유희정, 2016).

사회문제와 사회갈등 간의 문제를 구별해야 하고 동시에 양자 간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성근, 2013). 이 때문에 이슬람포비아가 사회현상이 아닌 사회갈등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은 둘 이상의 행위 주체 사이에서 심리적 적대감을 내포한 갈등 당사자 간 대립적 행동이라는 개념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대립적 행동은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갈등을 지각하고, 긴장, 불안, 적개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갈등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김태홍, 2005). 이러한 점에서 이슬람포비아도 다문화 시대 나타나는 사회현상의 단면이 아닌 시대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회갈등의 한 유형으로 바라 봐야 한다.

사회갈등에는 필연적으로 갈등 당사자 간의 대립적 요소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당사자 간의 대립으로 인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건설적(constructive) 갈등과 이와 반대로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파괴적(destructive) 갈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적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하고 갈등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강하다(임동진, 2016). 이슬람포비아는 이슬람과 무슬림을 향한 편견과 차별, 혐오와 적대 등 다양한 갈등 쟁점 하에 ‘비이슬람교 대 이슬람교’, ‘비무슬림 대 무슬림’, ‘주류사회 대 무슬림 이주민사회’라는 갈등 당사자 상호 간에 대립과 충돌이 반복되는 파괴적 갈등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의 본질적 개념과도 부합한다.

이슬람포비아는 다문화 시대로의 변화 속에서 파생된 사회갈등이 한 유형이다. 이슬람포비아로 인한 갈등은 한 국가 내에서만 발생하는 사회갈등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서방권 주요 테러 사건들이 사회적 차별로 소외된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자생테러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방과 이슬람’간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해온 이슬람포비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의 보복 테러 명분으로 작용해왔다.

2020년 10월 프랑스 한 중학교에서는 역사 교사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업중 당시 논란이 되던 주간지의 무함마드 만평을 수업 중에 소개한 것에 불만을 품은 10대 무슬림이 해당 교사를 길거리에서 참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내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했고, 전세계 각지에서는 이 역시 이슬람에 대한 탄압으로 규탄하며 대규모 반프랑스 시위, 폭동으로 이어졌다.³⁾

당시 국내에서도 2020년 11월 심야 시간에 국내 거주 외국인 무슬림이 서울 소재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 자국이나 빨간색 X 표시가 그려진 사진과 함께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적힌 A4 용지 전단을 부착한 사건이 발생했다.⁴⁾ 각각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국적 남성들로 밝혀진 이들은 검거 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⁵⁾

이처럼 이슬람포비아는 다문화 시대에 있어 주류 사회와 이민자 사회 간 공존의 가치를 저해함은 물론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 수호 의지가 강한 무슬림 사회의 적극적

3) 연합뉴스 2020년 10월 31일자 기사, “이슬람권 반(反)프랑스 시위 확산…‘마크롱 화형식’도 열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31029200009>

4) 조선일보 2020. 11월 4일자 기사, “프랑스 대사관 앞에 나붙은 “무슬림 공격하면 죽는다” 협박 전단”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04/HIKZYGDPMFERJM6JGZSLR2N4MY/?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5) 한겨레 2021년 12월 6일 기사, “무슬림 모욕말라 프랑스 대사관에 협박전단..대법, 선고유예확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079.html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사회갈등이다. 또한, 이슬람포비아로 인한 무슬림 이민자들의 소외와 불만이 지속된 사회일수록 이들의 사회적 분노와 반발 의지를 자극하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확산 또한 용이해 진다. 본 연구가 이슬람포비아로 인한 사회갈등에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Ⅲ.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이슬람포비아 현상에 대해 무슬림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떠한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무슬림들을 직접 만나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이들의 견해와 경험 사례를 직접 듣는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슬람포비아는 차별, 편견, 혐오, 배제, 적대, 폭력과 같은 사회갈등의 쟁점들을 개념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맥락적 기준 없이 추상화된 사회갈등 쟁점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취지에 부합하는 분석적 기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국내 무슬림들의 인식과 태도를 실체화하기 위해 이슬람포비아 개념 구성 요소들을 올포트 척도(Allport's Scale)와 비교해 수준과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스펙트럼화하였다.

올포트 척도는 편견과 차별의 사회적 과정을 5단계로 분석해 증오 선동이 한 사회 대중들의 인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의미 있는 분석적 틀을 제시한다. 올포트 척도는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Gorden Allport)가 고안한 것으로 나치독일이 범한 홀로코스트를 가능케 했던 심리적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오늘날까지 편견의 뿌리와 작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에 널리 인용되고 있다. 올포트 척도에 따르면 편견이 사회에서 표출되는 방식은 그것이 강화되는 정도에 따라 <표 3-1>과 같이 혐오표현, 기피, 차별·미묘한 적대, 물리적 공격, 학살 등의 순으로 전개된다(이주영,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포비아 갈등을 구성하는 쟁점 요소들을 올포트 척도에서 제시한 각 단계별 속성과 상호 비교해 편견, 혐오, 차별(배제), 적대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스펙트럼 구조로 재배열하였으며, 이를 국내 이슬람포비아 현상을 바라보는 무슬림들의 인식 수준과 태도 유형을 가늠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 활용해보고자 하였다.

〈표 3-1〉 올포트 척도⁶⁾를 활용한 이슬람포비아 갈등 스펙트럼

올포트 척도(Allport's Scale)		⇒	이슬람포비아 갈등의 스펙트럼	갈등의 강도
1단계 (혐오표현)	선입견에 근거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가 일상화		편견	약 ↓ 강
2단계 (기피)	사회 다수구성원들이 특정 대상 집단을 기피하고, 그로 인해 상대는 고립		혐오	
3단계 (차별 및 미묘한 적대)	·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해 교육, 일자리, 서비스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 · 심화하면 특정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열등감 조장 및 적대적 시선으로 발전		차별 (배제)	
4단계 (물리적 폭력)	소수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물리적 폭력, 직접적인 공격이 감행되는 단계		적대 (물리적 폭력)	
5단계 (학살)	편견 표출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로 소수 집단에 대한 말살, 제거 시도 등으로 나타남			

연구의 대상자 선정은 국적, 성별,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인 외에도 체류 기간, 현 거주지역, 국내 체류 동기, 직업, 가족 사항 등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본 연구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범주화해 선정하는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① 성별 ② 이주배경 ③ 국내 체류환경 등 3가지 속성에 따라 재구조화했다. 국내 체류 환경을 연구대상자들의 속성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인식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나 무슬림의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 사회 각종 무슬림 공동체 내부 견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가운데서도 서울(이태원), 안산(원곡동),

6) 올포트 척도의 내용은 이주영(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중요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3), p.208의 내용을 참고해 재정리함.

인천(연수구)등 무슬림 체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2>과 같다.

〈표 3-2〉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	출신국	성별	연령	체류 기간	이주 배경	혼인 여부	직업	거주 지역
〈A〉	파키스탄	남	45세	11년	혼인	○	회사원	서울
〈B〉	파키스탄	남	44세	12년	혼인	○	단순노동	안산
〈C〉	파키스탄	남	40세	13년	난민	X	단순노동	서울
〈D〉	파키스탄	남	45세	20년	사업	○	개인사업	서울
〈E〉	파키스탄	남	52세	19년	사업	X	개인사업	서울
〈F〉	파키스탄	여	33세	5년	유학	X	대학생	서울
〈G〉	파키스탄	여	30세	3년	유학	X	대학생	인천
〈H〉	방글라데시	남	32세	4년	유학	X	대학생	인천
〈I〉	방글라데시	남	33세	5년	사업	○	자영업	인천
〈J〉	방글라데시	남	50세	22년	사업	○	개인사업	서울
〈K〉	우즈베키스탄	여	39세	11년	혼인	○	회사원	인천
〈L〉	인도네시아	여	51세	12년	사업	○	개인사업	서울
〈M〉	말레이시아	여	24세	4년	유학	X	대학생	안산
〈N〉	시리아	남	35세	9년	유학	X	대학원	서울
〈O〉	예멘	남	36세	7년	난민	○	회사원	안산
〈P〉	터키	여	26세	3년	유학	X	대학생	안산
〈Q〉	터키	여	30세	4년	유학	X	대학생	안산
〈R〉	이집트	남	37세	4년	난민	X	무직	서울

2. 자료의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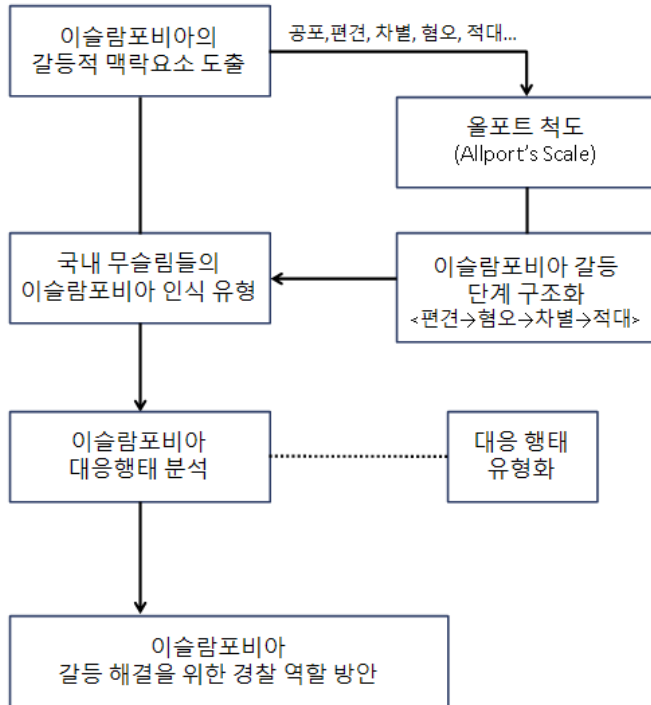
201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슬림 20명을 상대로 직접 만남을 통해 개인별로 약 30분~1시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사전 설계된 구조화된 21개 문항의 질문지를 토대로 연구대상자들로부터 답

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지의 구성과 항목은 이슬람포비아의 개념적 구성요소와 이슬람포비아의 원인과 양상 등을 다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된 주요 쟁점들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순서로 질문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응답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슬림으로서 겪은 차별, 편견, 배제, 혐오, 적대, 폭력과 관련된 직·간접 경험 사례들이다. 이는 한국 내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무슬림들의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둘째, 무슬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내 이슬람포비아 조장, 확산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최근 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슬람포비아는 크게 정부, 언론, 기독교, 반다문화주의 등이 이슬람과 상호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 어떤 요소가 한국 무슬림들에게 가장 심각한 이슬람포비아 조장, 확산 요인으로 인식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응답자들이 이슬람포비아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감정과 그 당시 취했던 태도나 행동들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무슬림들의 인식 수준별 대응 유형과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향후 한국 사회와 이슬람 간에 사회갈등 및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들을 도출해보기 위함이다.

준비된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와의 관련성, 응답자의 질문 이해정도, 응답 호응도 등을 고려해 반구조적 방식으로 질문하였고, 질문의 순서 역시 응답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시 응답자의 태도와 분위기 등은 메모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응답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취한 뒤 이를 전사해 분석에 활용했다.

〈표 3-3〉 본 연구분석의 틀



IV. 분석 결과

1. 이슬람포비아에 관한 국내 무슬림들의 인식 유형

심층 면접 결과 응답자별로 한국에서 이슬람포비아를 느끼는 인식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포비아의 개념을 구성하는 차별, 편견, 혐오, 배제, 적대, 폭력이라는 갈등의 쟁점 요소들을 근거로 조사 대상 무슬림들이 바라보는 국내 이슬람포비아의 수준과 강도를 ‘편견’, ‘혐오’, ‘차별(배제)’, ‘적대(물리적 폭력)’의 4단계로 재구조화해 분석하였다.

가. 편견

한국에서 이슬람포비아와 관련한 개인적 경험 사례가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들⁷⁾도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은 9.11테러, IS’, ‘무슬림은 테러리스트’(D, E, J), ‘수염 있는 아랍(이슬람) 사람은 무섭다’(D, K, M), ‘파키스탄 중에는 탈레반하고 친한 사람이 많다’(D, E)라는 등의 선입견이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의 존재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인식 역시 이슬람포비아 발생의 원인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무슬림들의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경계화하는 것 또한 이슬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지를 악용한 이슬람포비아 조장 진영의 의도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글라데시인 J는 ‘이슬람이 과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 법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파키스탄인 A도 “한국의 법과 제도는 외국인에게도 엄격하다”라며, 이 같은 주장과 논리의 허구성은 한국에서 이슬람과 관련한 그 어떤 테러 사건이나 이슬람과의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만 봐도 충분히 증명된다고 했다. 파키스탄인 B 역시 이슬람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이슬람포비아를 생산하는 측의 일방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견해는 한국 내 이슬람포비아의 원인을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시각 역시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낳은 근거 없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편견과 관련한 무슬림들의 경험은 주로 이슬람의 ‘낙후성’을 강조하는 서구적 관점의 선입견과 테러리즘과 관련된 ‘폭력성’의 인식에서 비롯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남성에게는 주로 외모와 출신지를 기준으로 한 ‘테러리스트 낙인화’, 여성에게는 허잡과 같은 ‘복식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멸시’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시리아 라끼(Raqqah)가 고향인 응답자 N는 지하철에서 자신을 알아본 한국인이 “당신 IS 아니

7) 본 연구의 18명의 응답자 가운데,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생활한 파키스탄인 남성 D와 E, 한국에서 22년째 거주 중인 귀화 방글라데시인 남성 J, 한국 남성과 혼인해 한국에 11년째 거주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여성 K, 한국에서 유학 중인 말레이시아 여대생 M 등 총 5명의 응답자들은 한국에서 ‘이슬람포비아 관련한 직접적인 경험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들도 이슬람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진 편견의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했다, 국내 생활하는 주변 무슬림들의 다양한 이슬람포비아 관련 경험 사례들에 관해 이야기해주었다.

냐”고 물어와 당황하고 불쾌했던 경험을 이야기했고, 파키스탄인 B는 “너 알카에다 도와주는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던 직장 동료와 다툰 경험을 이야기했다. 예멘인 O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이슈화된 이후부터 자신들을 테러, 낙후성과 결부 지은 편견이 한층 심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의 원인을 이슬람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한국의 언론의 편향적 보도 등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파키스탄인 A는 “한국의 언론은 독립된 언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같은 생각은 “한국 내 대부분 무슬림들이 동의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예멘인 O는 “한국인들이 접하는 이슬람에 관한 정보가 보이지 않는 권력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느낌마저 받을 정도로 제한적이고 왜곡되어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언론의 행태가 한국은 물론 이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가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이슬람포비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언론을 통한 이슬람에 대한 지엽적이고, 자극 중심적 정보들의 양산은 언론에 대한 불신을 넘어 무슬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융화 의지를 저해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반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응답자 B(파키스탄인), C(파키스탄인), L(인도네시아인), K(우즈베키스탄인) 등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이었지만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슬람 뉴스는 절대 보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응답자 N은 한국의 이슬람포비아가 이전과 달리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로 최근 달라지고 있는 국내 이슬람 혐오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그동안 국내 무슬림들이 겪는 이슬람포비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것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언론과 같은 사회 주류 세력이 가세한 조직적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한국 사회도 이슬람포비아가 개개인의 사적 동기에 기반을 둔 수준을 넘어,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집단화된 모습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견해라는 점에서 Khaled A. Beydoun(2016)이 설명한 ‘구조적 이슬람포비아(structural Islamophobia)’⁸⁾의 양상과도 일정 부분 흡사하다.

8) Khaled A. Beydoun(2016)은 구조적 이슬람포비아(structural Islamophobia)는 정부나 기관과 같이 정책을 담당하는 제도적 영역 내에서 형성되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나 의심을 의미하며, 국가 차원에서 이슬람과 무슬림을 사회안전에 위협이 되는 존재이자 불균형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했다.

나. 혐오

‘혐오’와 관련된 무슬림들의 인식과 경험은 주로 히잡과 같은 이슬람식 전통복장을 착용한 여성 무슬림들의 응답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당사자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히잡에 대한 노골적 거부감, 혐오적 발언, 언어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예멘인 O는 무슬림 외국인 관광객 여행안내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아랍권 무슬림 여성들이 ‘한국에서는 히잡과 같은 복장을 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인솔하는 무슬림 여행객들이 그들의 복장을 힐난하는 한국인들 때문에 불쾌하고 당황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만 봐도 한국에서 이슬람포비아는 혐오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다.

시리아인 N도 한국을 방문한 여성 무슬림 친구들과 식당에서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식당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들이 이슬람식 옷차림을 한 자신 친구들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폄평하며 모욕적 언사로 공격하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불쾌해했다.

“(2019년) 7월경에 한류 통해서 한국 알게 된 외국인 친구 2명과 이태원에 갔어요. 이 친구들이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해서 근처 식당을 갔는데요, 거기 식당 있었던 손님 중에 히잡 쓴 제 친구에 대해서 ‘히잡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다’, ‘너무 무섭다’, ‘히잡 벗어라’ 그래서 그 식당을 나왔어요”

(응답자 N, 시리아인, 男)

이 같은 사례는 단순히 옷차림만으로 무슬림은 경제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 무슬림들의 복식 문화 비판을 통해 이슬람에 대한 내적 편견을 공격적 언어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무슬림들에게는 심각한 혐오이자 언어적 폭력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차별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당사자의 자존감 훼손은 물론 사회적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여성 무슬림들은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 구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히잡이 실제로 한국에서는 자신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우즈베키스탄인 여성 K는 좋은 대학도 다녔고, 한국어는 물론 수 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자신의 친구가 단지 히잡을 쓴다는 이유로 한국회사 취업이 여러 번 좌절된 사례를 대변해주었다. K에 따르면 자신의 친구는 결국 한국회사 취업을 단념하고 지금은 동대문에서 자국민이 운영하는 영세업체에서 시간 일당제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슬람식 복식문화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 참여 기회의 배제라는 보다 심화한 수준으로 발전한 사례로도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이곳에서라도 히잡을 벗고 일할 수는 없는가?”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K는 실제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히잡을 벗고 무슬림이 아닌 척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 무슬림들에게 있어 히잡을 벗는 것보다 ‘무슬림이 아닌 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힘든 거’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슬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행위가 때에 따라서는 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무슬림들에게 차별적 수준의 이슬람포비아로 인식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인 L은 한국에서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인 하지(Hajji)⁹⁾에 참가하는 무슬림들의 항공권, 현지 숙박 등 전체 일정 조율을 담당하는 여행사¹⁰⁾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순례객 대부분이 국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슬림들인데, 매년 성지순례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무슬림들과 성지순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퇴사 요구 등으로 압박하는 회사 측과 갈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L은 실제로 한국 내 많은 무슬림들이 이 같은 직장 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지(Hajji) 순례 이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모습은 이슬람에 대한 한국 회사 측의 무지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그녀는 하지 순례를 가고자 하는 무슬림들이 이를 불허하는 회사 측과 겪는 그러한 갈등이 무슬림 당사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 활동권이 부정당하는 경험으

9) ‘하지(Hajji)’는 메카의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적 의례에 참가하는 일로 모든 무슬림들에게 있어 일생에 부과된 기본적인 종교 의무 중 하나이다.

10) 국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종교성에서 할당받은 인원 쿼터에 따라 매년 400명가량이 ‘하지(Hajji)’ 순례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 당시 국내에서 하지에 참가하고자 하는 무슬림들은 서울 이태원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총 3곳의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무지나 몰이해 때문에 종교 활동의 자율성이 부정당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 경험 사례들은 다양한 응답자들을 통해 도출되었다.

예멘인 O는 하루 다섯 번의 예배를 하고, 라마단 한 달간 금식하는 종교적 관습을 규제하는 회사 측과 갈등하고, 해고까지 당하는 무슬림들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 중인 파키스탄인 B와 C는 한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경험에 익숙해 진지 오래라고 말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무슬림들의 종교 행위 금지가 계약 조건화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무슬림에 대한 한국인들의 노골적인 ‘차별’이라 지적했다.

라. 적대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한 ‘적대’와 ‘폭력’은 예외적이거나 비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여러 응답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경험 사례가 도출되었다. 파키스탄인 C는 한국 내 이슬람 예배소에서 이슬람을 향한 적대적 의도가 농후한 갖가지 행위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아는 우즈벡 여자 친구가 이야기해줬는데요. 몇 년 전에 ○○ 사원에 여자 예배 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안에 있는 물통(정수기 생수 통)에 똥을 넣고, 카페트에 오줌도 싸고 갔어요, 누가 그런지는 몰라요”

(응답자 C, 파키스탄인, 男)

C의 말대로라면 한국 내 다른 이슬람 예배소에서도 적대의 수준과 방법은 달리 할 지언정 그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없지 않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이슬람 예배소가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사사례가 발생해도 내부적으로 함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C가 언급한 예배소의 경우 한국인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 중인 예배소였고, 해당 예배소 측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신도들에게 미칠 파급 영향과 외부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별다른 신고 조치 없이 내부의 문제로 조용히 덮고 지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인 N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난 무슬림 싫어해요”라고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나 불쾌했던 경험에 이어, 몇 달 전부터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한국을 떠나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까지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이야말로 한국 이슬람포비아가 이제는 무슬림에 대한 적대와 폭력의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야기했다.¹¹⁾

조사 대상 무슬림들은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이슬람 적대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적극적이었다. 시리아인 N은 몇 년 전 자신에게 예정되어 있던 서울 모 교회에서의 난민 인권 강연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당시 그는 강연이 취소된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교회 측에 전화했는데, 관계자가 다짜고짜 “무슬림이셨어요?”, 우리 교회는 무슬림을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뒤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당시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배타성을 체감했고, 그 이후로는 교회와 관련된 그 어떠한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파키스탄인 B, 방글라데시인 H, I, 인도네시아 여성 L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접한 일부 교회 신도들이 개종 설득과 상식을 넘어서는 교리 우월성 논쟁 조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들의 이슬람 비하적 발언 경험 사례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자존감을 겨냥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 사회 이슬람포비아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대상자들의 견해와 경험의 맥락 속에는 이슬람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무관심’이 이슬람포비아의 근원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이 비이슬람 국가이다 보니,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낳고, 편견은 다시금 두려움으로 이어짐으로써 이슬람포비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도 실제로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행위가 무슬림들에게는 이슬람의 신성을 모독한 적대 행위로 간주된 사례들도 일부 확인되었다.

방글라데시인 J는 2014년 한국 유명 여성 그룹의 댄스곡에서 이슬람 경전 낭송음이 삽입되어 전 세계 이슬람권에서 반발을 초래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한국 내 무슬림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전국의 이슬람사원과 무슬림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11) 응답자 N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이슬람 난민, 시리아 내전 피해자 지원 활동을 통해 무슬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온 무슬림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활동이 인터넷, 국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다가가 욕설과 협박을 하는 한국인들도 많아졌으며, 다른 응답자들보다 이슬람포비아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피력했다.

공유하며 대응을 촉구했던 사례를 이야기했다.¹²⁾ 이집트인 R은 2017년 한국의 한 드라마에서 히잡 차림의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하고, 이슬람 복장의 남성 주인공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을 두고 이집트 친구들이 이슬람 모독이라 크게 반발하고, 해당 방송사 앞에서 시위까지 한 사례를 소개했다.¹³⁾

2. 국내 무슬림들의 이슬람포비아 대응 행태 분석

이슬람포비아를 사회갈등으로 바라볼 때, 이를 생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어떠한 행태로 갈등에 대처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와 경험 사례 그리고 비판의식 수준에 따라 이들의 대응 모습을 ① 회피형 ② 타협절충형 ③ 경쟁대립형 등 3가지로 재유형화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¹⁴⁾

가. 회피형(Avoiding)

회피형은 이슬람포비아 경험에 직면하며 생긴 내적 불만을 스스로 봉합하는 경향이 강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 혐오와 적대, 차별과 배제와 같은 인식에 직면해도 그러한 내적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포기하거나 논쟁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침묵하는 유형이다. 회피형은 이슬람포비아로 인한 무슬림들의 즉각적 반발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적지만, 무슬림들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봉합됨으로써 꾸준히 축적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 국내 무슬림들은 대체로 편견을 경험하면 상대방에게 이를 수정을 요구하거나, 그와 논쟁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주장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

12) 당시 국내 무슬림 사이에서도 이슬람의 경전을 상업 음악에 사용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모독이라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결국 해당 기획사에서는 해당곡의 문제의 소절만 삭제하는 것으로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13) 연합뉴스 (2017. 7. 23). “MBC ‘죽어야 사는 남자’ “이슬람문화 회화 의도 없어” 사과

14)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슬람포비아 대응 행태 유형화는 이질적 문화간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통합형, 양보형, 지배형, 회피형, 타협형(Rahim & Bonoma, 1970), 회피, 순응, 경쟁, 타협, 협력형(Kilman & Thomas, 1997), 공격형, 협력형, 회피형(Alexander, 2000)과 같은 다양한 갈등 대응 및 해결 전략 유형들을 소개한 이노미(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다. 예멘인 O의 경우 무슬림인 자기를 보고 지하철 옆 사람이 갑자기 다른 자리로 옮겨서 난처했던 사례와 같이 편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비언어적 행위나, ‘IS’, ‘탈레반’, ‘알카에다’와 같은 폭력적 이미지로 외모를 폄평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도 갈등 유발 상대와 대립, 충돌하는 식의 대응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 무슬림들이 겪는 이슬람 복식문화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편견의 경험 역시 다양한 응답자를 통해 도출되었지만, 대부분 갈등 유발 주체와의 직접적인 대립이나 논쟁보다는 스스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회피형 대응 양상의 원인이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라는 가치 판단적 견해에 대응할 마땅한 논리나 수단을 찾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회피형은 이슬람포비아라는 외부 자극이 이어지면 각자의 내적 갈등이 지속해서 축적되고, 아울러 그러한 불만이 개인적 의견이 아닌 집단의 여론으로 확산할 경우 이슬람포비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타협절충형(Compromising)

타협절충형은 이슬람포비아를 경험한 무슬림이 갈등 상대와의 대립 교착을 피하고자 최선은 아니지만, 최적의 절충안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적정 수준의 타협을 시도하거나, 대응을 일시적으로 철회 또는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연구 결과 타협절충형은 무슬림들이 종교 활동의 제약이나,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각종 오해와 왜곡에 직면했을 때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타협절충형 대응은 갈등 유발 상대와의 대립보다는 적정 수준의 논쟁과 비판, 양보와 타협 등의 방법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무슬림들에게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훼손과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슬람 성지순례 여행사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여성 L은 매년 3주간의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를 가려는 무슬림들이 회사 측에 휴가를 요구하지만, 성지순례의 의미와 취지조차 이해하지 않으려는 회사 방침 때문에 결국은 해고나 이직까지 감수해야 하는 무슬림

들의 처지를 대변한 바 있다. 그녀는 실제로 적지 않은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가려면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식의 회사 측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 순례를 포기하거나, 성지순례를 전후해 스스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성지순례를 허락하지 않는 회사 측의 요구를 수용해 순례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스스로 옮기는 경우 모두 무슬림들에게는 종교 활동상 자율권이 부정되는 차별의 경험으로 인식되기 충분하지만, 무슬림들은 회사 측 방침에 정면 반박하거나 충돌하기보다 회사 측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철회하거나, 이직이라는 대안을 선택해 회사 측과의 직접적인 대립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예멘인 O와 파키스탄인 B, C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무슬림인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권을 제약하려는 회사 측의 방침에 논리적 반박이나 충돌 없이 일단은 수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무슬림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각종 오해와 왜곡을 목격하면 우선적으로 타협절충형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들의 몰이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논쟁이 갈등으로 증폭될 우려가 있거나, 기독교 신자들의 비논리적이고 공격적인 선교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인 B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방하는 논쟁을 걸어온 직장 내 한국인 동료에게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를 욕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싸움도 나고 사람도 죽어요”라며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의 몰이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수정해 줌으로써, 직장 동료와의 소모적 논쟁을 피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이슬람에 대한 종교성을 훼손하는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안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해외에서 처럼 이슬람을 모독하는 등의 적대 행위가 한국에서도 일어난다면 무슬림들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A, D, H, J는 대사관에, 응답자 B, E, L, M, K는 자국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응답자 C, F, G, K, I, L, N, O, P, Q, R는 자신이 다니는 이슬람사원 관계자들과 그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본 연구 대상 무슬림 대부분은 ‘이슬람 사원’을 평소 저마다의 고충 토로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일종의 경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 사원이 무슬림들의 불만

과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해법 모색을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위와 같은 소통 채널은 무슬림들에게 갈등의 상대와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조정자이자, 집단적 반발 가능성 감소시키는 완충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슬림들이 이슬람포비아로 인한 불만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그들의 생활영역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조정자적 기능의 소통 채널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타협 절충형 대응 방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타협절충형 대응은 이슬람포비아로 인한 개인적 불만을 무슬림 사회에서 일종의 조정 기능을 하는 이슬람 사원, 대사관, 커뮤니티와 같이 대표성을 지니는 기관의 조력을 거친다는 면에서 무슬림 개개인의 독자적이고 즉흥적 판단에서 오는 대응 과정상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한 대응 책임의 분산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한, 무슬림들이 이슬람포비아와 관련한 불만 표출을 억제함에 따른 심리적 무력감을 극복하면서도 갈등 대상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대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 경쟁대립형(Competing)

경쟁대립형은 자신이나 이슬람에 대한 비논리적 비판, 빈정거림,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등을 행하는 상대에게 발언의 수정을 직접 요구하거나, 그에 정면 반박하며 대응하는 유형이다. 경쟁대립형은 심화된 수준의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대응 양상이라는 점에서 회피형과 타협절충형과 달리 한층 적극적이고 때론 공격적인 형태를 띤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선택한 무슬림들은 주변인과의 관계 훼손은 물론 주류 사회와의 전면적 대립도 불사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응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연구 과정에서 예상보다 다양한 경우에서 이와 같은 경쟁대립형 대응 행태가 발견되었다.

시리아인 N은 지하철에서 “야! 너 TV에서도 봤는데 혹시 IS 아니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IS이면 당신이 내게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라며 맞받아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평소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못 들은 척하면서 외면하려고 했겠지만, 시리아에서 오랜 시간 연락이 두절 되었던 친척이 IS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으로 침울해 있던 중에 그런 적대적 발언을 듣고 나니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인도네시아인 L은 2018년 하지 성지순례를 떠나는 ‘무슬림들의 출정행진

동영상'이 '한국의 무슬림들의 반정부 시위'라는 자막으로 왜곡된 국내 이슬람 혐오진영의 유튜브 동영상상을 보고는 즉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반박 영상 제작해 인터넷에 올렸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같은 경쟁대립형의 대응 형태는 특히 이슬람에 대한 노골적 왜곡과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무슬림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응 유형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집트인 R은 2017년 국내 이집트인들의 페이스북에 한국 드라마에서 히잡 차림의 여성들이 비키니 차림에 일광욕을 하고, 무슬림으로 묘사된 남성 주인공이 이슬람 경전 옆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공유되며, 이에 대한 무슬림들의 비판의 글과 방송사 항의 시위계획이 논의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해당 드라마의 오류와 신성모독을 비판하기 위한 시위가 며칠 뒤 방송사 앞에서 열렸는데, 당시 4명 가량의 친구들이 시위에 동참했다고 이야기했다.¹⁵⁾ 한편, 응답자 J의 경우 한때 서울 모대학에 다니는 무슬림이 교수를 협박했다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 유포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변 무슬림들이 전화로 학교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거나, 인터넷 해당 글 아래에 댓글을 달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이처럼 경쟁대립형은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개별화된 무슬림들의 인식이 여론이라는 형태의 집단적 의사로 발전할 경우, 회피형과 타협절충형보다 우선하여 채택될 가능성이 큰 대응 유형이다. 경쟁대립형은 갈등 유발 진영을 향한 무슬림들의 직접적인 반발과 대립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이슬람포비아와 관련한 갈등 예방과 해법 모색에 나서는 경찰이 가장 주목해야 할 유형이라 할 것이다.

3. 이슬람포비아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방안

경찰업무의 시작은 갈등에서 시작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도 한국의 주류 사회와 이슬람 사회 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포비아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5) 한국일보 2017년 7월 30일 기사. “이슬람 왜곡 너무해” MBC 항의방문 이집트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7301853804088>

일반 국민은 물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사회와의 접촉은 경찰업무에 있어 필수 불가결적인 활동이다. 경찰은 이러한 경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하며, 때에 따라서는 갈등 당사자 간 조율과 절충을 유도하는 갈등 해결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경찰이 이슬람포비아로 인한 사회갈등의 예방과 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외국인 사회 간에 있어 이슬람과 같은 종교에서 비롯된 특수한 유형의 사회갈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치안 활동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역할은 주류사회와 이민자 사회 간의 대립과 충돌로 인한 사회 혼란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찰은 한국 사회 내에서 이슬람이라는 특정 집단 구성원이 가진 개인적,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직접 겨냥한 차별과 편견과 그에서 비롯된 혐오와 폭력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지닌 외국인 사회를 향한 의도적 자극 등의 갈등 유발 행위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무슬림들은 이슬람포비아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이슬람을 향한 종교적 왜곡과 모독 행위야말로 ‘경쟁대립형’방식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적대’이자,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이슬람포비아라고 지적인 바 있다. 2020년 11월 발생한 ‘프랑스 대사관 협박 전단 부착 사건’역시 이 같은 배경과 맥락에서 이해하기 충분한 사건으로 이슬람포비아로 인한 사회갈등에 있어 경찰의 역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 사례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당시 이들이 부착한 전단에는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 자국이나 빨간색 X 표시가 그려진 사진과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다.¹⁶⁾ 이 사건은 이슬람 창시자 풍자 만평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전세계 무슬림들이 격렬한 반발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위협까지 고조되던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당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오늘날 이슬람포비아로 인한 무슬림들의 반발과 사회갈등의 문제는 특정 국가

16) 조선일보 2020년 11월 4일자 기사. “프랑스 대사관 앞에 나붙은 “무슬림 공격하면 죽는다” 협박전단”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04/HIKZYGDPMFERJM6JGZSLR2N4MY/?utm_source=nate&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 외교, 안보, 문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결합해서 나타날 만큼 복잡해지고 있다. 경찰로서도 이슬람포비아라는 특수 사회갈등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육성과 활동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이슬람포비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단순히 법집행자적 관점에서 한국 내 이슬람 사회와 무슬림 개개인을 상대로 한 침익적 수준의 갈등 유발 행위에 초점을 맞춘 치안활동이 아닌, 한국 사회와 이슬람 이민자 사회 상호간의 관계개선과 공존을 견인할 수 있는 ‘갈등 예방·해결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평소 다문화 치안, 외국인 범죄 예방, 수사 활동 등 평소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업무 관련성과 이슬람포비아라는 외국인 사회 특수갈등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높은 외사경찰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내·외국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2020년부터 시작된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지역주민, 무슬림 간 갈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¹⁷⁾ 그 외에도 지난 몇 년간 일부 종교와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 다양한 진영에서 생산된 이슬람 비판 논리가 국내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견제와 혐오의 수단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왔다. 이처럼 종교라는 특정 정체성에 뿌리를 둔 사회갈등은 해결 과정이 어렵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슬람포비아’라는 말은 이제는 한국에서도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제 한국도 이슬람 포비아를 서구, 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우러져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가치를 저해할 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무슬림들은 한국에서 이슬람포비아가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 테

17) 오마이뉴스 2022년 2월 5일자 기사, “해 넘겨 소송전으로 번진 대구 이슬람사원 신축갈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7747&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러와 관련성이 부각되는 안보적 요인 외에도 이슬람에 관한 극히 ‘제한된 정보’와 ‘무관심’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한국이 비이슬람 국가이다 보니,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낳고, 편견은 다시금 두려움으로 이어짐으로써 이슬람포비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대상자들은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가 이슬람의 신성 모독성 행위로까지 이어지면 그 의도성의 여부를 떠나 심각한 이슬람포비아 행위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무슬림들은 한국에서 이슬람포비아를 생산, 유포시키는 핵심 주체로 언론 미디어와 일부 기독교 단체들을 꼽았다. 언론에 대해서는 이슬람에 대한 독자전해 부재에 따른 전문성 부족, 의도적 과장과 왜곡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국내 무슬림들의 인식과 태도를 재해석해 이들의 이슬람포비아 대응 행태를 도출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무슬림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항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경찰이 이슬람포비아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이슬람포비아와 같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경찰이라는 특정 주체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슬람포비아 극복을 위해서는 경찰 외에도 한국 내 시민사회, 이슬람 이민자 사회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 해결의 주체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가 한국 사회 이슬람포비아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국내 무슬림들의 인식과 이들의 비판적 견해에 좀 더 주목하고자 했지만, 이슬람포비아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응은 주류 사회 보편적 가치와 법질서와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국내 이슬람 사회 또한 무슬림 커뮤니티 지역별 대표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내부 여론 수렴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이슬람포비아 문제에 능동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이슬람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각종 급진적 이데올로기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적극적 비판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국내 소수의 외국인 무슬림들만을

연구 대상화한 점,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구성이 중동과 같은 정통 이슬람권 국가보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지역 출신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 등은 표본 선정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아울러 연구대상자 각자의 경험과 견해를 토대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맥락과 요소를 분석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연구자의 주관 이 개입된 해석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연구 결과 일반화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국적의 무슬림들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대상 집단의 사전조사(pilot survey) 등의 방법을 통해 질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 보다 나은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무슬림만을 연구 대상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내국인 무슬림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보다 더 많은 이슬람포비아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 이슬람 가정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무슬림 2세 등도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향후 추가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가 이슬람포비아라는 단일 주제로 사회갈등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슬람포비아 외에도 다문화 시대 속 사회구성원 간의 새로운 유형의 혐오 유발 요인,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범죄와 사회갈등의 문제들 역시 후속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연구 주제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문. (2016). 이슬람포비아, 조장인가 실체인가?, 진보평론 67), 138-159
- 김동문. (2017).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선을
- 김동영, 박수선, 이선우, 이강원, 황인표, 박소연,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16). 소통과 갈등관리: 사례찾기. 49
- 김예찬. (2012). 한국내 외국인 무슬림들의 사회적 관계와 적응과정, 전주이슬람성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학 3(1), 70-71
- 김상근. (2009).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선교신학적 성찰,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신학 제21집, 180-192
- 김승민. (2013). 프랑스의 이슬람포비아 확산원인, 세계지역연구논총 31집 3호, 197-215
- 김성근. (2013).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갈등문제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6-17
- 김상섭. (2017). 다문화 공공갈등의 전개와 지방정부 대응: 이슬람사원건축허가를 둘러싼 갈등 사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3호
- 김종태, 한기덕. (2013). 한국 대학생의 외국인 차별 의식의 근원 :민족, 문명, 선진국 담론의 비판적 검증, 담론 201 16권 3호, 42-45
- 김태홍. (2005).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12
- 남정섭, 영남대학교. (2013).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 담론 분석을 통한 셋방화 시대의 다문화 담론 모색,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문정책연구총서 2013-04, 10
- 문시영. (2016). 팩트체크와 셀프체크: 이슬람포비아의 윤리학적 성찰,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Journal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방송영상콘텐츠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 2018. 1월, 17-57
- 종교평화국제사업단. (2019). 2019 한, 이슬람 종교간 대화 세미나, 우리사회의 갈등과 해결방안, 세미나 자료집

- 박성호. (2012). 한국의 다문화 형성과 종교의 역할, 종교와 문화 제22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2, 159
- 박종수. (2017). 한국사회의 이슬람혐오 현상과 쟁점-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제29호, 57-58
- 신예원, 마동훈. (2009).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난민의 양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미디어경제와 문화, 제17권 2호 31-80,
- 안신. (2009). 영국의 이주 무슬림 공동체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9-2집
- 유희정. (2016).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7집 2호, 42-43
- 이노미. (2010).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갈등 양상: 국내 거주무슬림 유학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제18권 3호
- 이성수. (2015). ISIS이후 이람세계의 변화와 이슬람포비아 현상에 대한 고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9-1집
- 이주영.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중요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3), 208-209
- 이진구. (2011). 다문화시대 한국 개신교의 이슬람인식: 이슬람포비아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 이호중. (2004).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경찰의전문가 참여제와 회복적 공동체사법(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형사정책연구, 2004. 9, 19-20
- 이희수. (2015). 북아프리카 이슬람원리주의 집단들의 정치세력화와 우리의 외교적 대응, 2015년 외교부정책연구, 3-4
- 임동진, 윤수재. (2016). 갈등원인이 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쟁점요인과 매개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4권 제2호, 121
- 정경일. (2018). 그리스도인의 무슬림 혐오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135-137
- 정승현. (2016). 이슬람포비아의 이해와 선교학적 함의,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Center Journal, 11-13

- 정현, 박서연, 전희정. (2017).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구조적·문화적·환경적 관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5권 제4호, 312-313
- 조희선. (2010).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중동학회
- 최영미. (2016). 제노포비아 현상에 관한 연구, 다문화 콘텐츠연구 제21집, 119
- 황갑진. (2015).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과 사회적갈등; 인 터넷 신문에 나타난 차별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 황규진. (2011). 갈등해결기법의 경찰업무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27호)
-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50호, 2015년 12월, 305-306
- W. Ali, E. Clifton, M. Duss, Lee Fang, S. Keyes, and F. Shaki. (2011). *The Roots of the Islamophobia Network in America*, Cente for American Progress, Aug 2011, 8-9
- Y Richard Wike, B. Stokes and K. Simmons (2016). Europeans Fear Wave of Refugees Will Mean More Terrorism, Fewer Job, Pew Research Center JULY 11, 2016,
<https://www.pewresearch.org/global/wp-content/uploads/sites/2/2016/07/Pew-Research-Center-EU-Refugees-and-National-Identity-Report-FINAL-July-11-2016.pdf>
- Christopher Allen, S. Nielsen (2002). Summary Report on Islamophobia in the EU after 11 September 2001,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 Fabio Perocco. (2018). Anti-migrant Islamophobia in Europe. *Social Roots, Mechanism and Actors*, REMHU, Rev. Interdiscip. Mobil. Hum. Brasília, v. 26
- Enes Bayrakli, Farid Hafez. (2017). European Islamophobia Report 2017, SETA

- Foundation, https://setav.org/en/assets/uploads/2018/07/EIR_2017.pdf
- David Torrance. (2019). General Debate on the definition of Islamophobia, House of Commons Library, 14 May, 2019
- Engy Abdelkader. (2017).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an Islamophobia: France, UK, Germany, Netherlands and Sweden, Journal of Islamic and Near Eastern Law UCLA, 2017
- The Runnymede Trust. (1997). 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 Report of Runnymede Trust Commission on British Muslims and Islamophobia, 1-5
- Faisam Hanif. (2018) State of Media Reporting on Islam & Muslims, Centre of Media Monitoring Quarterly Report Oct-Dec2018, <https://cfmm.org.uk/wp-content/uploads/2019/07/CfMM-Quarterly-Report-Oct-Dec-2018.pdf>
- Khaled A. Beydoun.. Islamophobia: Toward a Legal Definition and Framework, Columbia Law Review Online November 1, 2016, <https://columbialawreview.org/content/islamophobia-toward-a-legal-definition-and-framework>
- Youth and Sport of the Council of Europe. Islamophobia and its consequences on Young People, European Youth Centre Budapest 1-6 June 2004 Seminar report. <https://rm.coe.int/16807037e1>
-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British Muslims, Report on the inquiry into A working definition of Islamophobia, anti-Muslim hatred, 11.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99c3d2febbd1a90cffdd8a9/t/5bfd1ea3352f531a6170ceee/1543315109493/Islamophobia+Defined.pdf>
- Heidi Mescher. (2008). Policing and Islamophobia in Germany: The Role of Workplace Experience, IJCV: Vol. 2 (1) 2008, 138-156
- The Carter Center, Countering Islamophobia Industry: Toward more effective strategies, May 2018, 51-52, https://www.cartercenter.org/resources/pdfs/peace/conflict_resolution/countering-isis/cr-countering-the-islamophobia-industry.

pdf

Ajuntament de Barcelona, Government measure Municipal plan to Combat Islamophobia, 2016, <https://www.eccar.info/sites/default/files/document/Measure%20Plan%20against%20islamophobia%20%28eng%29.pdf>

Gallup, Islamophobia: Understanding Anti-Muslim Sentiment in the West, 2011, <https://news.gallup.com/poll/157082/islamophobia-understanding-anti-muslim-sentiment-west.aspx>

A Study on the Aspects and Social Conflicts related to Islam in Korea and the Role of Police

Lee Dong-hyuck* · Jeong Ji-su** · Lee Song Ho***

This study dealt with the issue of Islamophobia, another aspect of discrimination and hatred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where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s increasing. Islamophobia, fear of Islam, in the dictionary knowledge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antagonism, fear, prejudice, discrimination, exclusion, hate, and violence against Islam and Muslims. In Korea, where the influx of foreign residents is increasing, Islamophobia is developing into a new type of social conflict that undermines the value of coexistence and coexistence between the mainstream society and the Muslim immigrant society. Unilateral hatred and hostility toward Muslims can further deepen their isolation in Korean society and provoke their resistance and backlash, which can lead to greater social conflict. Therefore,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looked at the aspects of Islamophobia in Korea from the generalized point of view, this study diagnoses and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social Islamophobia from the perspective of Muslim, which is another subject of related phenomena. At the same time,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an approach solution for the police authorities to deal with a new type of social conflict called Islamophobia in the multicultural era.

❖ Key words: Islamophobia, Islam in Korea, social conflicts, conflict resolution, multicultural society, community policing

*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Police Studies,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Inspector, Foreign Affairs Division, Seoul Metropolitan Police(leevent@hanmail.net)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jisu@police.ac.kr)

*** Emeritus Professo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shlee2350@hanmail.net)